

《박뽕남 할머니의 기막힌 학교생활》 독서 지도안



윤정 글, 유영근 그림 | 96쪽 | 내일도맑음

교과 연계

- [국어] 1학년 1학기 6. 또박또박 읽어요
- [국어] 1학년 2학기 2.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요
- [국어] 2학년 1학기 4.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
- [국어] 2학년 2학기 4. 마음을 전해요
- [국어] 3학년 1학기 3.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키워드

#가족 #할머니 #독서 #도전 #성장 #저학년창작동화

《박뽕남 할머니의 엉뚱한 일기》에 이은 박뽕남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



책 읽어주는 할머니가 된 박뽕남 할머니!
할머니에게는 설렘, 손자 우진에게는 설마 또 망신?

글씨도 삐뚤빼뚤 쓰고, 글도 틀리게 더듬더듬 읽는 일흔여섯 살의 박뽕남 할머니가 우진 이네 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 박뽕남 할머니가 책을 평범하게 읽을 리가 없지요. 아이들 앞에서 기가 막히게 책을 읽어 주는데요!

‘기막히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박뽕남 할머니는 과연 어떤 의미로 기막히게 책을 읽어 줄까요?

독서 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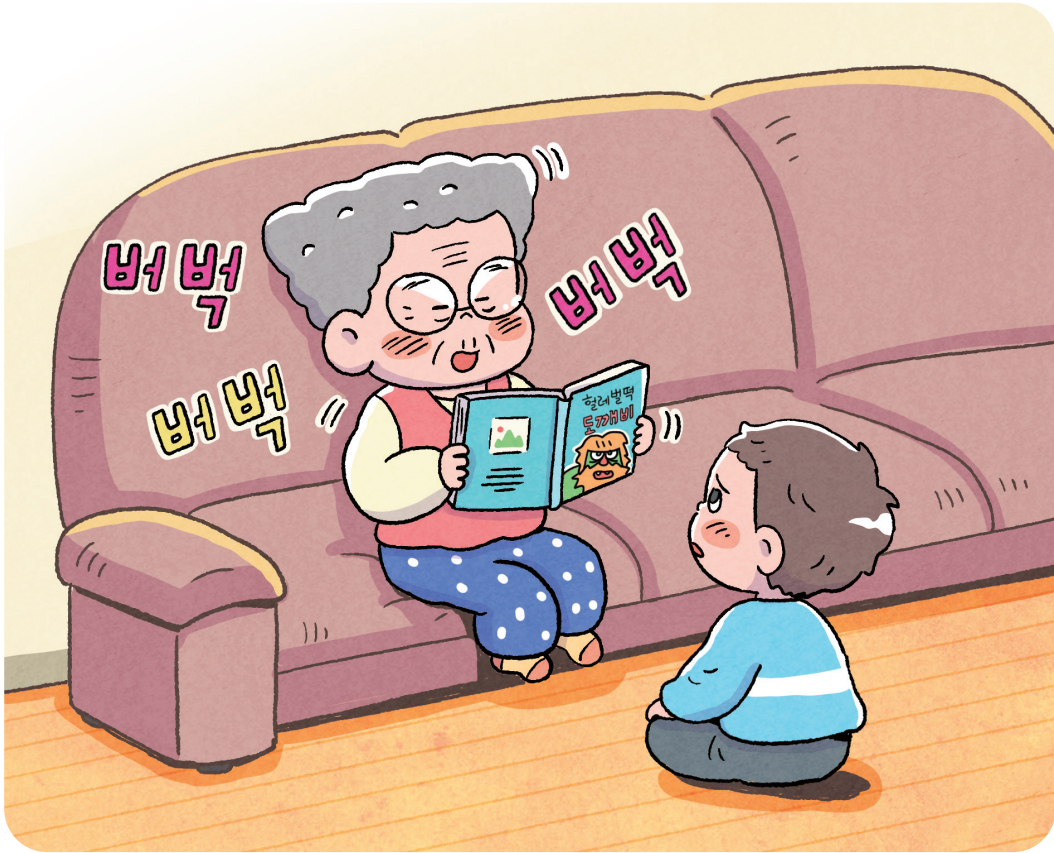


1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2 박봉남 할머니는 왜 학교에 가게 되었나요?

3 학교에 가게 된 박봉남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우진이는 왜 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걱정되었나요?

5 우진이는 왜 할머니에게 마녀 모자와 망토를 드렸을까요?

독서 중 활동



6 박봉남 할머니가 고물상에서 주워 온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7 그 책의 내용 중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세요.

“호랑이가 어흥! 하니, 토끼가 아이고 호랑님 살리 주씨요 했습니다.”

“갑자기 떡이 어디 있으요? 차라리 우물가에서 송님을 찾으씨요.”



8 '기막히다'의 두 가지 뜻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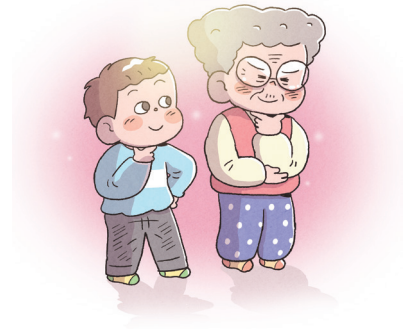
①

②

9 《박봉남 할머니의 기막힌 학교생활》은 두 가지 뜻 중 어느 것에 속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후 활동

- 10 책을 잘 읽으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 11 아이들 앞에서 긴장한 박봉남 할머니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한다면?

- 12 박봉남 할머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그까짓 것, 할 수 있지!”라고
말해요. 언제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나의 마음
가짐을 크게 적어 보세요.